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내륙권역 수질통합방제 합동 훈련

김영찬기자 | 승인 2026.06.30 17:36 | 11면

의령저수지서 유류 유출·녹조 발생 대응 가상 훈련 전개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의령저수지에서 '2026년 경남 내륙권역 수질통합방제 합동 훈련'을 실시했다.
/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이재경)는 의령저수지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'2026년 경남 내륙권역 수질통합방제 합동 훈련'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훈련은 농업용수 공급의 요충지인 저수지에 예기치 못한 유류 유출과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.

특히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, 실천과 다름없는 긴장감 속에서 방제 작업이 전개됐다.

이날 훈련에는 경남 내륙권역 통합방제단 소속인 의령지사, 진주산청지사, 거창함양지사, 합천지사 등 개 지사 방제요원들이 대거 참여했다.

참석자들은 사고 접수 직후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,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오일

펜스 설치, 유흡착재를 활용한 유류 제거, 녹조 제거제 살포 등 단계별 조치 내용과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숙지했다.

또한, 인근 지사 간 재난 자재 지원과 인력 동원 등 지사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점검함으로써, 대규모 수질 오염사고 발생 시 인근 지사가 합심해 공동 대응하는 '통합방재단'의 실전 능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.

이재경 지사장은 "안전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"라며 "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고,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 수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 김영찬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영찬기자